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우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본필자: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36호  
서기 2001년 9월 26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길 따로 없고 사방 허공이 모두 내길

오늘 이렇게 같이 한자 리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법당을 짓느라고 여러분께서 모두 더불어 애쓰시고, 여러분이 함께 애쓰신 반면에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성의와 스님네들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지었는데도 아직도 장소가 부족해서 모두 한자리에 앉게 되기를 못하니 제 마음에 는 그래도 큰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생활은 마음먹기 달려

우리가 처음 여기에 법당을 짓고 부처님 한 분만 달랑 모셨었는데 이렇게 법당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혹성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 법계에서도 단 한 분이 면 족한 것입니다. 수 만 명이 깨달았다 할지라도 일불(一佛)인 것입니다. 진리가 똑같은지 말입니다. 차원이 따라서 적고 크고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 따로따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번에 점안식을 할 때 한 도량으로서 그 안에 법당이며, 법당의 구조 또는 바깥으로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점안식을 했습니다. 점안식을 한 것은 이 법당으로부터, 법당 내에 모신 분들과 또는 지옥고라든가 부처님 세계라든가 중(中)세계라든가

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만약에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할 때 가져갈 것이 많지는 않아도, 가져갈게 없어도 사람이 놀래니까 놀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모두 집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다르고 부처님 도량이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도량입니다. 한 도량에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이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내 앞에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면 부처님 진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면 모두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헤어질 수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래, 위에 세분이나 계셔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데는 한 분씩만 계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적으면 한 분 더 계시게 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의 마음이니깐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더 무서운 거죠. 이 껍데기 모습이 그냥 지키는 거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모두가 그렇게 된 걸 아시고 가정에서도 대답하면 그렇게 생각해서 쓰시는 것이 법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없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할 것도 없



그림 · 최주현

보이는 차를 말하는 거구요. 그래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들고 있으나 같이 돈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로 돌아가니까 나도 없고 모두가 없다. 그런데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는 뭐냐. 여여하게 그냥 향내를 내면서 또 착하게 찰나찰나, 그냥 부처님 법을 한치도 버림없이, 또 버린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산다고 해서 함부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즉 사는

정, 지혜 중에서 선정과 지혜를 빼놓고 했다는 얘기도. 그런데 선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거기서 들고 거기서 나는데 말입니다. 그대로 올바른 생각으로 실천을 하고 그런다면 그게 곧 선정이죠. 공심으로서 공생으로서 공체로서 공용하면서 공식으로 들어가는 도리입니다. 그게, 그리고 끄트머리의 지혜라는 건 그냥 마음만 잘 내고 크게 내면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대처할 수가 있어야 만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차원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지혜로 한데 몰아서 본다면 하나도, 그것을 이름해서 부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이연기법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정에서도 쉽사리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게 본다면 말입니다.

### 생각하기 이전 한마음을 잘 내면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수 있게 돼

것이니까요. 사랑적이지 않아서 그냥 사는 것이 여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육바라밀이니 십이연기법이니 하는 것도 지금 과정이 다 몰락 놓아져야 믿어 수승한 거죠. 십이연기법이 다 거기서 머물러, 우리가 살면서 이날까지 거기다 놓고 온 결과와 열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고 살 수 있나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모든 것을 놓고 살 수 있나. 모든 것을 놓고 그냥 살 수 있나. 힘이 없이 살 수 있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다 몰락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으로써 생사까지도 놓게 되는 겁니다. 생사까지 놓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여여한, 이름해서 부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 크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로 응음이 되고 또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으로 응음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아버지 노릇 한다. 나는 남편 노릇을 한다 이라고 누가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가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즐겁고 여여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저렇게 부처님을 모셨는데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 생각하는 게 곧 사는 것

의 근기를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의 근기를 알아서 관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갖다 놓지 않아도, 수없이 많이 그려놓지 않아도 아주 자상하고, 예전에 달마대사처럼 말입니다. 양 무제 왕이 달마대사를 죽였는데 중국에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길을 걸다가 보았다고 하는데 그 보았다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질세기 한 짝 끼어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국을 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달마대사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나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죽은 것도 없다.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갈 것도 없고 이렇게 여여하게 그냥 살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려운 게 없었습니까마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이 깔려있으면 모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깔려있지 않다면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

20면으로 계속

### 십이 연기법도 한마음에 들어 있어

### 모습 없기에 여여하고 생사도 없어

모든 분들을 다 모셔놓고, 또 부처님 십대제자 분들을 그냥 우리 모습으로 해서 모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큰스님들을 다 모셔진 것은 모습은 달리했음 지언정 우리 소박한 그 모습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낯설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모셔놓은 줄만 알고 계시지마는 모신다고 하는 것은 모습만 모신 게 아닙니다. 모습만 모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신과 모습을 더불어 같이 모신 겁니다. 그래서 점안식을 할 때에 전부 같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옥고의 길이 무슨 다섯 개니 네 개니 하고, 또 보통 우리 지금 사는 데에 길이 네 개니 다섯 개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데요. 그것도 우리가 공부할 해서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그냥 사방이 툭 터져서 허공이 다 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우리 공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량 내 모든 공간을 통틀어 모두 점안식을 한 겁니다.

점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닌

고, 또 했다고 할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모두가 다 없느니라. 없기 때문에 모두 자상하게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사계절이 생기고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그렇게 여여하게 살게 되는 것도 우리가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찰나찰나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근기가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것을 본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모두 살면서 남의 말을 듣고 움직여주고, 그림을 보고 움직여주고, 또는 남의 형상을 보고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모두를 그렇게 하고 가니까 그게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머리에 입력이 돼서 없어지지 않는 거와 같이 그냥 현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십이연기법이라고 있고요. 여러분은 책을 다 읽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생, 노, 사라고 했습니다. 이 열 두 가지의 모두를 살아나가는 데에 여러분이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혹된 과거로부터 일어나는 번뇌가 바로 무명입니다. 우리 모습 말입니다.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습니다. 무지로서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식에 대해서는 의식

작용, 과거로부터 무명과 행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명색, 이므로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고, 마음 형체가 있는 물질입니다. 육입, 눈, 귀, 코, 혀, 몸과 의근, 육처라고 합니다. 촉이라는 것은 바로 사물의 접촉함이라고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세계로부터 받아들이는 바로 고통과 감각이라고 합니다. 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구합니다. 취,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걸 다 자기가 취하고 산다는 뜻이죠. 생, 몸을 받아 현재 사람을 취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노?사, 늙어서 죽음에 도달했을 때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따지고 보면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사람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지으려면 무명이라는 이 모습이 공해가 없다고 했죠. 무슨 까닭에 없다고 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무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공해서 찰나찰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움직여주는 것이 그대로 천차만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라, 어떤 것을 세웠을 때 내가 세웠다고 할 수 있으라,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라, 어떤 것을 말했었을 때 내가 말했었다고 할 수 있으라 하는 겁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이 모두가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명이라는 것이 보잘 것 없고 불필요한 것이지만 무명이 없으면 진짜

근본 불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이 힘이 없이 하고 간다는 뜻을 안다면 전체 일거수 일투족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고 다니는 운전수와 같은, 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수와 같은 내 주인공이 진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전수가 모든 걸 이끌어 가니까 그 운전수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냥 편

### '무명' 없으면 '불성'도 없어

리하게 살라는, 심부름하는 시자처럼 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것이 없다 이 소립니다. 할 것도 없고 또 내 것도 없고 남의 것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과 사도 없다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가서 무명이 없는데 어찌 행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행이 있겠는가 이겁니다. 행이 없는데 식이 어찌 있겠는가, 식이 없는데 명색이 어디 있으며 명색이 없는데 육입이 어디 있겠는가. 또 촉이 없는데 수가 어디 있으며, 애가 어디 있으며, 체가 어디 있으며, 생이 어디 있으며, 노사(老死)가 어디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없다.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선정이라고 한다면, 운전수라고 한다면, 운전수는 보이지 않는 운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끌고 다니는 차는

가까운 언덕을 넘듯 고요한 현실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신 288쪽  
값 6,000원  
어서아문